

인간중심의 과학을 위하여

메리 미즐리의 「구원으로서의 과학」을 읽고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기포드 강좌(Gifford Lecture)라면 나는 숙연해진다. 아담 로드 기포드(Adam Lord Gifford)라는 분이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 내 주변의 몇몇 사진을 들추어 보아도 이분의 소개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포드 강좌에서 행한 강의내용이 책이 되어 출판된 단행본중에서 너무나 나의 심금을 울린 명저가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라는 명저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해 즉 1927년과 1928년 두해에 걸쳐 에딘버러대학에서 이루어진 기포드 강좌의 강의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 유명한 하이젠버그의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physics and philosophy)도 1955년 겨울 학기에서 앤드류스대학에서 이루어진 기포드 강좌의 소산이었다. 유명한 신약성서 학자인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의 「역사와 종말론」(History and Eschatology)도 1955년 2월 7일에서 3월 2일까지 에딘버러대학에서 행해진 기포드 강좌의 강의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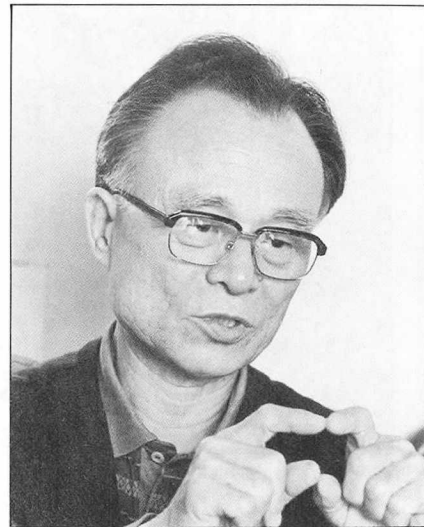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975년과 1976년 에딘버러대학의 기포드 강좌에서 비롯된 스탠리 재키(Stanley h. Jaki)의 「The Road of Science and The ways to God」라는 저서의 소개를 보면

스탠리 재키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요시아 로이스(Josiah Royce), 존 듀이(John Dewy), 폴 틸리히(Paul Tillich) 그리고 라인홀트 니버(Reinhold Niebour)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기포드 강좌에 초빙된 미국인이라는 점을 특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기포드 강좌의 초청연사가 얼마나 존경받는 자리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우연히 눈에 띈 제목

나는 「언어본능」(The Language Instinct)이라는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눈에 띈 「Science as Salvation : A Modern Myth and its Meaning」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였다. 저자가 'Mary Midgley'였다. 영어책은 아무래도 우리말이나 또는 일본말(내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일본어는 우리나라 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책을 읽을 때보다 부담이 간다. 그래서 몇십페이지 정도 읽다가 읽혀지지 않으면 그만두기가 일쑤다. 그러나 이 책의 경우는 빨리 들어갔다고나 할까, 여하튼 2백20여 페이지가 되는 분량을 독파할 수가 있었다.

저자에 관해서는 별로 깊이 알 수가 없었다. 책 표지에 소개된 바로는 도덕철학자(Moral



Philosopher)로만 되어 있고 저서로는 「Beast and Man」, 「Wickedness」 그리고 「Wisdom, Information and Wonder」가 있다고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이름이 처음 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전에 사 두었던 John Durant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Darwinism and Divinity」라는 책을 뒤져 보았더니 그 책 안에 메리 미즐리의 「The religion of Evolution」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다.

전에 한번 통독했던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이

제목에 이끌려 산 이 책은 손에

잡자마자 빨려들어 2백20여페이지

분량을 독파했다. 저자에 대한 소개가

없어 궁금했는데 저명한 기포드강좌에

초빙된 것을 알고 새삼 숙연해졌다. 이

책은 전체 19장에 걸쳐 과학과 종교의

문제를 캐들어간다. 어째서 우주는

존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가의

물음은 곧 과학 앞에 선 인간의

구원문제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나지 않아서 다시 훑어 보았더니 이 저서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에 소개된 필자의 소개를 보았더니 역시 저술가이며 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철학자라는 정도의 내용 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을 보니 이 책의 내용이 1990년 봄에 에딘버러대학에서 행해진 기포드 강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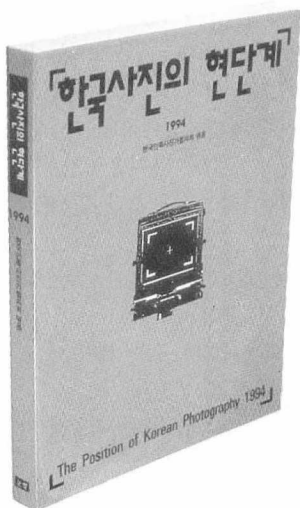
기포드강좌의 유언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이 강좌는 과학과 종교분야에서 인류에 공헌한 분들이 주로 연사로 초빙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책의 내용이 당초 기포드강좌에서는 '구원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구원'이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미 과학과 종교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은 중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체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첫장의 제목은 '구원과 학문'(Salvation and Academics)으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 인용된 참고 문헌의 저자들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워딩턴(C.H. Waddington) 버날(J.D. Bernal), 포퍼(K.R. Popper), 도킨스(Richard Dawkins), 호킹(Stephen W. Hawking)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등이다. 벌써 인용문헌의 순서에서 이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

과학과 종교의 두 지주로 사는 인간

사람이라는 동물은 과거의 긴 역사를 통해서 축적해온 과학적 지식이 쌓아올린 큰 틀, 즉 진화라는 틀 안에서 정신 즉 마음(mind)을

한국예술사진의 흐름 총망라

「한국사진의 현단계」 1994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예술은 흘러가는 시간 속의 '세상찍기'이다. 이 세상은 사진작가의 눈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롭게 탄생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진가 1백여명이 찍어낸 '세상'을 담고 있다. 때론 무채색으로 때론 색깔을 담은 채, 또 풍경이나 기록 초상 누드사진에서부터 사진가의 개인적 심상을 찍어내는 순수예술 사진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진이 총집결돼 있다.

이 책이 1백여 사진가들의 작품집인 동시에 자료집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한 현대

사진 예술의 흐름이 다채롭게 실험,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추구가 자유롭게 표출되는 동시에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는 방법도 진중하게 모색되고 있다.

땀투성이 농군의 마디굽은 손, 탄재를 뒤집어 쓴 광부의 체념어린 눈빛, 갈 곳이 없는 노인들과 양로원에 갇힌 할머니 등 리얼리즘이 극대화된 작품을 비롯해서 추상적 이미지로 강렬한 비판과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독특한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사진들은 그대로 한국 사진예술의 현 위치를 말해준다. 민예총 산하 한국민족사진가협회가 사진 전문가집단으로 출범한 지 1년만에 처음 선보이는 사진집이다.

한국민족사진가협회 엮음 / B4 / 202면 / 20,000원 / 눈빛

